

간 나오토 내각의 과제와 전망

양기웅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I. 간 나오토 내각 출범
- II. 하토야마 내각의 단명
- III. 간 총리의 정치적 이념
- IV. 새 내각의 과제와 전망
- V. 미일동맹
- VI. 한일관계

I. 간 나오토 내각 출범

2010년 6월 8일, 일본 민주당의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이 공식 출범했다. 간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최소 불행사회 건설,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재정 건전화,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한 아시아 중시 외교’ 등의 내각의 정책 우선순위를 밝혔다. 간 총리는 자신의 내각을 과감하고 빠른 결단을 키워드로 하는 ‘기병대 내각’ 이라고 불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 제2기 내각은 간 총리를 포함한 18명의 각료 중 7명이 새로 입각하거나 보직을 바꾸었고 11명이 유임됐다. 새 내각과 당 지도부는 당내 최대그룹을 이끌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전 간사장 계파를 배제했다. 내각의 평균 연령은 61세에게 59세로, 주요당직자의 평균 연령은 69세에서 52세로 낮아졌다. 일단 인적 쇄신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6월 10일 니혼케이자이 신문 보도에 의하면 간 나오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최고 68%까지 올라갔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 68%는 정권 출범 당시의 지지율 기준으로 볼 때 역대 5위이다.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간 나오토 내각의 지지율은 64%였다(그 직전의 여론조사에서 하토야마 내각지지율은 19%였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내각지지율은 60%였고, 민주당 지지율은 38%, 자민당 지지율은 14%였다. 내각과 민주당 인선에서 보여준 간 나오토 총리의 인적 쇄신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II. 하토야마 내각의 단명

전임자 하토야마 총리는 작년의 선거혁명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문제 처리를 둘러싸고 국내외의 거대한 비판과 압력에 휩싸여 결국 사임했다. 당의 실력자인 오자와도 하토야마 총리와 함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간사장 자리에서 동반 사임하였다.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이 두 사람의 사임은 다음 달 7월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와 내각과 정당지지율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내 최대 실력자인 오자와는 작년 봄 이후 정치자금 스캔들에 발목이 잡혀 내각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되어 왔고, 하토야마도 어머니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을 누락했다는 의혹으로 깨끗한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

하지만 하토야마의 가장 큰 실패는 후텐마 기지 이전과 관련된 결정이었다. 하토야마는 선거 당시 후텐마의 미군 기지를 오키나와 섬 밖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공약을 했고 집권 초기 미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2006년의 미일 합의 백지화를 추진하는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8개월간의 우유부단한 행보 끝에 결국 미군 기지를 오키나와 섬 내에 존속시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하토야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잃어버렸다.

그는 첫째 미일동맹에서 ‘신뢰’를 잃었다. 8개월간의 결정 지연 혹은 무결정 끝에 결국 하토야마는 후텐마 기지 이전 결정을 번복하였고 미국이 요구하던 바는 들어주었지만 미일동맹은 신뢰성에서 큰 손상을 입었다.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는 2006년 미일 양국의 합의사항이었고 하토야마의 선거공약은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수정하겠다는 것이었다. 둘째, 이 8개월의 무결정의 결정과정은 일본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고 미국의 체면을 손상시켰다. 셋째, 오키나와 주민들과 일본여론은 하토야마에게서 배신감과 무력감을 느꼈다. 하토야마의 우유부단은 미국과 오키나와 중에서 최소한 한 쪽은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에서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산출한 것이었다.

하토야마는 집권 초기 약속했던 정책변화를 실행할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일본 국민들에게 줄 수 없었다. 하토야마의 소통 능력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혹은 일본 국민이 아

직도 수십 년간 계속되어온 대미종속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혹은 이 두 가지 모두가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Ⅲ. 간 총리의 정치적 이념

간 나오토는 일본정치에서 민주적 반란을 이끈 시민활동가형의 지도자이다. 도시 소비자와 시민들을 조직하여 강력한 관료주의와 자민당의 낡은 농촌정치의 연합에 대항하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하여왔다. 간 총리는 일본의 낡은 연합이 한때 ‘일본의 기적’을 만들어냈지만 이제는 그 생명력이 다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낡은 연합은 세계화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지 못했다. 1998년 민주당이 참의원에서 제1야당이 되었을 때, 간 나오토 당시 민주당 대표는 일본의 토니 블레어로 불리면서 높은 인기를 얻었다. 그는 세계화를 받아들이고 과도하게 관료화된 국가를 개혁하고자 하는 ‘제3의 길’ 방식을 주장했다.

간은 일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소비자와 납세자의 정당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더 이상 농촌 지지나 혹은 거대한 건설회사, 관료주의에 종속되는 기업 등에 의존하는 정당정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관료지배에 극도로 비판적이다. 통치하는 사람은 관료가 아니라 선출되는 정치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간은 일본 수정주의자로 유명한 카렐 반 울프렌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공언해왔다. 울프렌은 ‘일본 권력의 수수께끼’라는 책에서 일본정치의 정치적 책임력 부재를 비판했다. 간은 일본에서 80%의 정책은 관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겨우 20%만이 선출된 정치가가 만든다고 말해왔다. 이런 그의 정치적 이념을 고려하면 그가 지향하는 개혁의 방향은 과도하게 관료화된 국가를 개혁하고 세계화를 받아들이면서 소비자와 납세자를 위한 일본사회를 만드는 것을 향할 것이다.

Ⅳ. 새 내각의 과제와 전망

내각 출범 시점의 내각과 민주당 지지율이라면 다음 달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수를 넘기면서 정권 기반을 더욱 안정화시킬 잠재력이 있어 보인다. 만약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게 되면 민주당은 연립정부를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책면에서 간

내각은 보다 자율적인 행보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참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시 연정을 구성해야 하고 군소정당에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간 내각은 선거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첫째, 간 총리는 깊어가는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 일본의 재정적자는 국제통화기금이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간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연간 국채를 44.3조엔 이하로 억제해도 일본의 국채는 증가한다. 이 상태로는 수년 안에 국채와 지방채를 합친 잔액이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는 상황이 닥칠 것이다. (일본은) 전체적으로 망가질 듯 한 시대에 처해 있다. 재정위기의 원인은 20년 동안 세금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국채를 마구 발행해서 무계획적으로 공공사업을 벌인 자민당 정권에 있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책으로 ‘과감한 결단’을 언급했는데 아마도 이것은 세제개편과 소비세 인상 등 재정건전화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어떻게 세금을 인상하고 세제를 개혁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건전재정정책은 사회보장을 희생시키거나 세금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지지를 하락으로 이어지기 쉽다.

둘째, 간 총리는 미국과 기지 이전 분쟁을 수습해야 한다. 후텐마 결정에 직접적으로 간여하지 않았던 간 총리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하토야마 총리보다는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간 총리 자신이 외교에 있어서 현실주의자로 통한다는 사실에서도 대미협조라인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각의 주요 멤버들이 친미파이거나 현실주의자들이다. 간 총리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을 새 내각에 유임시켰다. 오카다와 기타자와는 미군기지 오키나와 밖 이전에 반대하는 현실주의자로 알려져 있고 마에하라 의원은 친미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군기지 논쟁은 지속될 것이다. 이 이슈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게도 후텐마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미국은 후텐마에서 체면 손상을 우려한 나머지 하토야마 내각을 압력으로 굴복시키는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값비싼 것이다. 오키나와의 반미감정은 고조될 것이고 대미종속에 대한 일본 국민의 민족주의적 자각은 높아질 것이다.

셋째, 간 총리는 4년간의 혼란과 우유부단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에게 안정성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간 총리는 11일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라고 밝혔다. 또 ‘내가 완수해야 할 사명은


건강한 일본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오늘 연설을 시작으로 차례차례 새로운 비전을 제시 하겠다. 내가 제안하는 비전을 이해하고 반드시 나를 믿어주길 바란다' 며 신뢰를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는가이다. 간 총리가 대국민 설득과 소통의 달인이거나 혹은 국민 스스로가 간 총리에게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잦은 정권 교체로 상징되는 일본 정치의 우유부단과 무결정 그리고 혼란은 반복될 것이다.

V. 미일동맹

앞선 약간 언급한 바와 같이 후텐마 기지 문제는 미국에게도 앞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하토야마 정권과의 8개월간의 싸움에서는 미국이 얼핏 보기에는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미국에게도 값비싼 승리이다. 일본 내 민족주의를 더 자극하고 오키나와 주민들을 보다 반미적으로 만들면서 얻어낸 승리이다. 수십 년간 계속되는 대미 종속 외교에서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하토야마 정권 탄생을 이끌어냈다. 따라서 미국은 미일동맹을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후텐마 처리를 능숙하게 해야 한다. 이번에는 체면을 지켰으니 (미국이 일본 국내의 정치적 기류 변화를 잘 읽고 있다면) 다음 번에는 미국이 양보해줄 차례이다.

VI. 한일관계

하토야마 전 총리는 한일 과거사 문제에 관하여 국내외의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는 야당 의원 시절부터 일본의 전쟁범죄 조사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 및 보상 등과 관련된 법안들을 여러 차례 제출한 바 있고, 총리 취임 이후에도 과거사 청산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민주당 정부는 출범 직후 한국인 강제동원 노무자 피해 자료로서 올해 3월에는 17만명 분의 노무자 공탁자료 사본을 한국에 전달함으로써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하토야마의 이상주의는 실현되지 못했다. 재일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 입법이나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을 자극하는 표현을 피하고자 했던 하토야마 총리 자신의 전향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당내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하고 좌절하였다.

간 총리는 아시아 중시의 외교적 현실주의자로 평가된다. 하토야마 전 총리의 우에 외교와 비교하면 조용하고 실용적인 외교 혹은 내정 중시의 태도가 두드러질 것이다. 하지만 이상주의자의 우유부단함보다는 현실주의자의 결단이 한일관계의 불필요한 분쟁과 마찰을 최소화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내개혁을 통하여 높은 지지율을 확보한 현실주의자가 이상주의자보다 결과적으로는 더 협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다만, 이 가설은 간 총리가 국내 개혁에 성공하여 내각 출범 당시의 높은 지지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이다. 하지만 만약 간 총리가 내정개혁에 실패하여 지지율이 낮아진다면 한일관계는 무관심과 무결정의 상태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간 총리의 내정개혁이 성공하길 기원한다.(2010/06/15) 

※코리아연구원(원장 박순성)은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02-733-3348, knsi@knsi.org) 또는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코리아연구원을 후원할 수 있으며, 후원회비 및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의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